

세계 원유 매장량 1조2800억배럴

석유협회, 사우디 2600억배럴로 1위 ... 가스는 6040조입방피트

세계 원유 가채매장량이 1조28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가 미국의 석유 전문잡지인 석유가스저널(OGJ)을 인용해 정리한 <세계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1일 현재 세계 원유 가채매장량은 1조2777억배럴로 집계됐다.

석유가스저널이 2004년 1월 집계한 원유 가채매장량 1조2658억배럴보다 120억배럴 가량 늘어난 것이다.

원유 가채매장량은 사우디가 2594억배럴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가 1788억배럴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이란 1258억배럴, 이라크 1150억배럴, 쿠웨이트 990억배럴, 아부다비 922억배럴, 러시아 600억배럴, 리비아 390억배럴, 나이지리아 352억배럴, 미국 219억배럴, 중국 182억배럴 순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2004년 석유 소비에도 불구하고 신규유전 개발 등에 따라 원유 매장량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캐나다는 석유가스저널이 매장량 집계 때 제외해오던 오일샌드(Oil Sand)를 2003년부터 포함시켜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 보유국가로 뛰어올랐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가스 가채매장량은 러시아 1680조입방피트를 비롯해 모두 6040조입방피트로 집계됐다.

<화학저널 2005/01/07>